

미 테러사태에 따른 주요 업종별 산업동향 및 전망

- 산업자원부 -

1. 일반기계산업

對美, 對中東 수출비중은 2000년기준 각각 19%, 7%로 총 26%를 점유하였다. 對美주요수출 품목은 공작기계, 건설기계, 냉동공조기계등이며 對中東주요수출품목은 플랜트, 냉동공조, 금형등이다.

<대미, 대중동 수출 비중>

구 분	2000	2001(1~7)
• 전체(백만불)	9,855	6,133
• 대미(백만불)	1,940(19.6%)	1,220(19.8%)
• 대중동(백만불)	688(6.98%)	526(8.58%)

미테러사태 이후, 미국내 공항 및 항만폐쇄에 따라 통관지연, 항공운송 중단, 수출대금 입금지연등 일부 수출차질은 발생했으나 3일만에 봉쇄조치가 해제되었고 해상운송비중이 높은 기계류의 특성으로 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공격이 국지적으로 단기 종결될 경우 기계류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한 100억불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지역 최대수출품목인 플랜트의 경우 수주에는 차질이 예상되나,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큰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 중동지역내 국내진출업체 대부분은 친미성향의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에서 두산중공업등 5개사가 1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중
- * 사우디 : 두산중(37명)
UAE : 삼성ENG(2명), 두산중(81명)
쿠웨이트 : 대림ENG, 두산중(27명)

그러나, 미국공격이 확산되고 장기간 지속시 기계류 수출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90억 불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2002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대중동 수출비중이 높은 플랜트, 냉동공조, 금형, 건설기계등의 수출이 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랜트의 경우 현재 수행중인 공사의 지연 또는 중단이 예상되며, 수주 추진중인 프로젝트의 발주 연기 또는 지연으로 플랜트 수주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후 피해복구 수요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석유화학

석유화학제품의 대미수출의존도(5%미만)가 작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대중국수출 감소, 아시아지역의 공급과잉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보복공격 국지적으로 단기간 종료시 석유화학제품은 낮은 대미 수출비중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원유 및 납사)는 일시적인 상승세 후 안정될 전망이다.

미국 보복공격이 확산되고 장기간 지속시 급격한 원료가격 상승이 석유화학제품 판매가에 즉시 전가되기 어려우므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 전망이며 미국의 전쟁수행으로 인한 수입 수요부진은 국내 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주도할 전망이다(중국의 대미 가공제품 수출 부진→한국의 대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부진)이다.

또한, 수요감소와 함께, 생산공급도 감소(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화학 제품의 10%수준 생산)함에 따라 수급상황이 다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 등을 포함한 대 중동수출은 전체수출의 2-3% 수준

3. 자동차 산업

선적 및 하역이 정상적으로 진행중(단, 선적 입항시 검색으로 접안대기시간 길어지고 있음)이며 판매량은 9.13일 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이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미국 보복공격 지적으로 단기간 종료시 미국 지역에 대한 자동차수출비중(금액기준)이 42.2%(2001. 1~7월)로 상당히 높으나, 유가 및 환율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차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보복공격이 확산되고 장기간 지속시 전쟁의 장기화로 유가상승이 유발되고 자동차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며 미국 자동차수요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의 감소 및 유가의 상승에 따라 수요가 저가의 중소형차로 이동할 경우 우리 주수출차종의 미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미국 자동차시장의 위축과 한국산차의 시장점유율 증가의 상반된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 지가 관건)할 것이다.

중동으로의 수출비중은 7%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해안봉쇄로 인해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경우, 상당한 수출차질이 예상된다.

4. 조선산업

2001. 8월말 현재 보유업무량은 3,172만톤(259억 \$)의 25년치 건조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조선산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산업중 일부가 불안정하다.

유조선 시장은 중동지역의 전쟁을 우려한 화주들의 용선 경쟁으로 운임지수 상승, 정기선 시장은 북미항로의 향후 물동량 확보 여부가 불투

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용선료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미국 보복공격이 국지적으로 단기간 종료시 조선소별로 25년치 건조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분간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對美 선박수주가 연 10척내외(수출 연간 3억불)로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음

그러나 미국보복공격이 확산되고 장기간 지속시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건조선박의 인수기피 및 발주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단,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추선 등 원유관련 플랜트 발주는 증가할 것이다.

후발국(중국)의 투자지 약화로 인한 상대적인 경쟁력 유지는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보복공격이 확산되고 장기간 지속시 될 경우는 미국의 수입규제로 이미 미국내의 출자회사등에 필요물량만을 공급하고 있어 국제 철강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이상 대미 수출에는 더 이상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으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중동지역의 수출물량은 4.5%에 불과하며, 수출선 다변화 노력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수출비중은 확대 추세에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오히려 피해복구를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강판류는 소비위축에 따른 가전, 자동차산업 등 수요산업 침체로 수요가 다소 감소하는 반면 철근, 형강의 경우는 수요산업이 건축산업과 조선산업으로 테러사태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 철강산업

미국 테러사건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어 수출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나 제품특성상 해상으로 수출되어 통관이 대체로 순조로우며,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철강재 국제가격은 테러사건에 영향을 받지않고 테러발생 이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큰 변동이 없다.

그러나, 미국 보복공격이 국지적으로 단기간 종료시 세계 금융불안과 소비심리불안등으로 철강수요도 간접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여 철강경기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이며, 미국의 201조 공청회(9월 중순부터)와 OECD철강회의(9.17~18)등 주요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철강생산량 조절에 의한 세계철강시황 회복이

6. 휴대폰

미사태 발생 이후,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 생산, 마케팅 등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주요 수출품 운송은 항공으로 현재 정상적인 상태이며, 원자재 공급은 전 부품의 생산국 다변화로 큰 문제없다.

금융결제는 남미는 credit, 중국과 미국은 L/C로 처리하고 있고, 재고 및 주문량 동향은 사태 이전과 별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 핸드폰수출(통관기준) : 8.1~17(근무일수 14일)
421.4백만불 → 9.1~17(근무일수 14일) 457백만불

다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휴대전화기 수출비중이 44.5%나 되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경

FOCUS

이 달의 초점

국가별 수출비중 (2001. 7월누계 기준)

(단위 : %)

구분	미국	중남미	중동	EU	일본	중국	기타
100.0	44.5	5.0	3.8	10.7	0.1	0.4	35.5

색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 보복공격이 국지적으로 단기간 종료시 미정부의 금리인하, 조세감면 확대 등 부양책으로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보복공격이 확산되고 장기간 지속시 미국 소비심리 위축, 달러화 약세, 유가상승, 국제금융불안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국내경기 악화로 내수 위축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수신자위치추적기능 등을 법제화할 경우 이에 대응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7. 컴퓨터

전쟁 발발 예상 인근지역인 중동과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으로의 수출물량은 전체에서 1% 미만으로 직접적인 수출물량감소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물량의 88.4%를 점하고 있는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경기 침체 지속으로 수출 회복시기가 지연 될 것이다.

국가별 수출비중(2001. 7월누계 기준)

(단위 : %)

국가	미국	중남미	중동	EU	일본	중국	기타
100.0	49.9	0.6	0.2	9.7	28.8	0.9	9.9

미국 보복공격 단기간 종료시 수출물품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 항공사에 대한 입항제한 조치가 나올 경우 항공운송에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

Window XP 출시(10월말 예정), 크리스마스 특수 등으로 인한 수요진작 효과의 축소가 우려된다.

*삼보컴퓨터 등은 이미 2002년 상반기 물량까지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의 연말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미국 PC업체들은 재고처리때문에 2002년 상반기 계약 물량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미국보복공격이 확산되고 장기간 지속시 국내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저가형 Consumer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8. 반도체

대미수출은 금년 7월까지 24.7억불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며, 대중동 수출은 1%이하의 비중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 테러사태로 인해 100% 항공운송에 의존하는 반도체의 경우 선적차질이 발생했으나, 수출 신고가 계속되어 공식적인 수출감소는 없었다. 동기간 중 반도체 수출실적은 전월대비 증가하였다.

*반도체 중 집적회로 (8542세번) 수출 : 8.11~17(근무일수 5일) 151.1백만불 → 9.11~15(근무일수 5일) 166백만불

미국 보복공격 국지적으로 단기간 종료시 공격이 아프간에 국한되고 단기간에 종료시 직접적인 수출감소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아프간 반도체 수출실적이 전무하고 중동권도 1% 미만

다만, 전쟁 발발시 금년 4/4분기로 전망되고 있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시점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고 있다.

미국보복공격이 확산되고 장기간 지속시 항공기 운행중단등에 따라 대미 수출및 유럽수출이 급감할 것이며, 반도체 경기회복 시점이 2003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증대하다.

원자재 수급곤란으로 생산의 일부중단이 불가피하다.

샘플 수송 바이어와의 상담이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회복중이다.

단, 일부 바이어가 경기침체를 예상하여 상담을 미루고 있거나 신규 상담을 꺼리는 등 구매의지가 다소 위축되었다.

미국 보복공격이 국지적으로 단기간 종료시 일반적으로 동절기 의류소비 수요가 많아 미국 지역의 소비심리 위축이 다소 완화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보복공격이 확산되고 장기간 지속시 미국의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성향도 중·저가 의류를 선호하여 수출단가도 하락할 전망이다.

중국·동남아·중남미 등으로의 직물 수출도 의류 수요가 감소 함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도 원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기업여건의 압박이 예상된다.

9. 섬유류

섬유류 2000년 수출액(184억불) 중 대미 수출은 36억불(19.5%) 차지하였다. 섬유류 대미 수출은 의류와 직물 중심으로 2000년 각각 2.6억불, 8억불 수출하였다.

대중동 수출은 직물 중심으로 2000년 14억불 수출하였다.

그러나, 美테러사태이후, 항공 운송이 중단되어